

소형선박저당법제정(안) 국회 제출

지금까지 선박등기 대상이 아닌 20톤 미만 소형 어선과 수상레저 선박인 모터보트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져 소형선박 선주들의 자금유통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'소형선박저당법' 제정(안)을 마련해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이 법이 제정되면 소형선박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100%의 자기자본이 아니어도 선박구입이 가능해져 해양레저 산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지금까지는 20톤 이상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저당권 등 재산권행사가 가능했으나, 20톤 미만 선박은 자동차·건설기계·항공기처럼 법정담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고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담보가 불가능했다.

특히 주 5일 근무제의 확산 및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레저기구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나 선박담보가 불가해 레저용보트의 구입에 애로가 많았었다.

소형선박 법정담보제도가 도입되면 총 등록선박 9만8000여척 중 약 8만9000여척이 저당권 설정에 의한 자금유통이 가능하게 된다.

|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동정

2006년도 수산업 경영인 해외연수 실시

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(회장 이상만)은 수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어업정보 수집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태리,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해외연수를 실시했다.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홈스테이를 처음 도입하여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접하게 되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. 각 연수단에는 어촌지도공무원이 동행해 상호 토의 등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연수효과를 극대화 했다.



- 해외연수 실시전 사전교육 장면 -